

# Post-modern 복식의 복고성에 관한 연구

- Baroque 복식의 loop와 tassel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정 홍 숙

## 目 次

- I. 서 론
- II. Post-modernism 조형예술의 특성
  - 1. Post-modernism의 개념 및 양식적 특성
  - 2. Post-modernism 조형예술의 전개
    - 1) 건 축
    - 2) 미 술
    - 3) 복 식
  - 3. Post-modern 복식의 복고성
- III. Baroque 조형예술의 특성
  - 1. Baroque 양식의 개념
  - 2. Baroque 조형예술의 특성
  - 3. Baroque 복식의 장식성
- IV. Post-modern 복식에 표현된 Baroque 복식의 loop와 tassel
  - 1. 외적 형식의 변화
  - 2. 내적 의미의 변화
- 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 I. 서 론

두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과 그 직후에 일어난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들은 대중에게 인간성을 위협하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증폭시켰고, 인간의 주체와 자아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를 느끼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주체의 해체(Deconstru-

ction of Subject)'라는 Post-modernism적 현상을 낳게 하였다.<sup>1)</sup>

따라서 Post-modernism은 어떤 특정분야의 문화논리가 아니며 한 시대의 진리를 보는 시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 시대의 진리를 보는 시각이 당대의 삶의 패턴이나 예술의 기법과 관련을 맺고

\* 본 연구는 1994년도 중앙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음.

있음을 고찰해보고 덧붙혀 Post-modernism 복식의 고찰을 통해 복식이 타 조형예술 분야와 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을 조명해 보려는데 의의를 둔다.

Post-modernism은 그 특성상, 여성적이고 장식적인 것은 무엇이든 열등한 것으로 분류하였던 19세기에서 20세기 Modernism까지 계속되어 온 가치체계에 대해 반발<sup>2)</sup>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대상들에게 탐구될 기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여성들을 포함한 제3세력(청소년, 흑인 등)들은 그들의 가치를 주장하게 되었으며, 사회는 이들 타자들의 담론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이에 예로부터 여성과 깊이 관련되어 온 복식에 대한 논리들 또한 유행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가지면서 진지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Post-modernism에 관한 논의는 간접적으로 최소한 복식에 관한 연구를 낮은 지위에서 끌어올려 문화적 또는 미학적 대상으로 연구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해 주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문화논리는 여러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는데, 재현의 불가능성이라는 Post-modernism의 개념은 예술분야에서 복고주의 경향으로 나타났다. 복고주의는, Modernism의 추상적 경향에 의해 결여되었던 예술의 상징성을 과거의 역사적 요소들을 참조하고, 이들을 해체, 과장, 확대, 축소 등을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려는 경향으로 복식 분야에서는 새로움을 추구하고 자율성에 의존하는 시대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하였는데, 이는 Post-modernism이 복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인 80년대로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복식 표현에 있어 중요한 특성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복식에 나타난 Post-modernism 조형예술의 복고적 경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조형의 양식적 특성에 있어 장식성과, 부조화·비대칭을 통한 추의 미의 수용 등 양식적 근거를 함께 하는 Baroque 조형예술의 특성을 고찰하고, Baroque 복식에서 남성복의 주된 장식으로 쾨

위와 위엄을 상징하였던 loop와 tassel이 패로디(Parody)의 기법에 의해 새로운 의미로 창조되어 Post-modernism적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써 현대 복식의 조형에 있어 복고적 경향을 고찰하고 나아가 복식에서의 복고적 경향은 타조형예술 분야와 그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loop와 tassel의 사용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외 문헌 자료와 작품, 현대 패션잡지 그리고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였으며, 아울러 본 연구는 1994년도 중앙대학교 교내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 II. Post-modernism 조형예술의 특성

### 1. Post-modernism의 개념 및 양식적 특성

역사적으로 Post-modernism은 대략 2차 세계 대전 후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Modernism과 Post-modernism의 구별은 이런 역사적 시간 구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Modernism의 흐름자체가 인습이 되어 버릴 정도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Post-modernism이라는 일련의 사조로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Post-modernism은 하나의 통일되고 집약된 미학적 개념이나 구체적인 조형문제에 근간을 둔 미술운동이 아니라 Modernism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 개념의 추구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축성과 포용력은 있으나 추상적인 인식을 대변하는 의미로 수용되었다.<sup>3)</sup>

초기의 Post-modernism에 관한 논의는 주로 문학 분야에서 시작되었는데, Post-modernism을 Modernism의 후기단계로 보아 Modernism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획기적인 혁신으로서의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Paradigm)이 아니라고 하는 회의적 입장과 한편 Modernism으로부터 구

적인 결별의 산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긍정적 입장이 공유되고 있었다.<sup>4)</sup>

초기의 이러한 경향들은 그후 논의의 발전과정에서 가시화되고 점차 태동기의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문학 및 문화전체를 총괄하는 총체적이고도 국제적인 현상이 되었는데 특히, Post-modernism의 대표적인 특성인 다원화의 개념은 1970년대 이후 문학 및 문화현상 모두를 포괄하는 총괄적 용어로서 이합 하싼(Ihab Hassan)<sup>5)</sup>에 의해 체계적으로 사용되고 정립되었고, 그의 폭넓은 논의는 Post-modernism을 국제적 현상, 이질적 담론 등을 포함하는 커다란 하나의 문화적 패러다임, 즉 시대정신(Zeitgeist)으로 승격시키는데 공헌하였다.

이와같은 Post-modernism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언어가 실체를 지칭하거나 예술이 현실을 반영한다는 반영론 혹은 재현에 대한 발발이다. 이 반발은 75년을 전후로 조금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전반부는 Modernism으로부터의 탈출에 급급하여 일상의 감흥, 즉흥성, 파편화, 관객과의 일체감, 대중성, 정치성을 강렬히 드러내는 개혁적이고 비판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으며 후반부는 그런 비판이 또 하나의 재현이 됨을 깨닫고 재현을 받아들이면서 재현을 통해 그것을 거부하는 역설적인 양식을 취하였는데, 전 후반부를 통틀어 사용된 압도적인 특성은 재현을 거부하기 위해 전통, 혹은 과거의 형식을 빌려 현재상황으로 변형시켜 새로움을 담은 '과거의 현존'<sup>6)</sup>으로 이것은 미술에서의 알레고리(allegory), 음악에서의 반복(repeat), 문학에서의 패러디(parody), 건축에서의 이중 약호지움(dual code)등으로 각 문화분야에서 다원화된 개념으로 나타났다.

## 2. Post-modernism 조형예술의 전개

재현에 대한 회의는 Post-modernism의 핵심이 된다. 즉 재현이 하나가 아니고 이중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Post-modernism이다. 따라서 문

학 분야에서 이른바 Post-modernism은 후기 산업사회의 정신적 상황에 부응하는 해체주의라는 새 영역을 발굴하였고, 철학분야에서 푸코(M. Foucault), 데리다(J. Derrida)등에 의한 후기 구조주의와 함께 Post-modernism과 동의어로 인식되고 있다.<sup>7)</sup>

재현의 거부를 위한 노력은 제반 예술분야에서도 Post-modernism의 사상적 인식소로 자리잡고 있는데, 특히 조형예술인 건축, 미술, 복식분야를 중심으로 그 전개양상을 살펴보려 한다.

### 1) 건 축

건축은 모든 예술영역 중에서 Post-modernism이 Modernism과 가장 뚜렷하게 구분되는 영역으로 Post-modern 건축은 '이중약호지움'의 양식을 통한 '과거의 현존'을 그 특성으로 하는데, 공식성을 강조하는 Modernism과는 달리 과거의 다양한 생활양식에 대한 향수를 강조함으로써 전통이나 역사성에의 복귀를 주장한다.<sup>8)</sup>

즉, 건물의 웅장함, 조화, 비례, 통일 등을 건축가의 입장에서만 감지하려던 단일코우드적인(univalent code) Modernism적 경향에 비해 Post-modernism 건축은, 주거자의 감각을 중시하고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해 역사와 전통에서 모티브를 얻어옴으로써 의미와 상징성이 풍요하고, 인간적인 도시환경을 만든데 이때 건축가는 주거자와 상호의사소통을 통해 주거자의 감흥을 최대한 수용하는 이중코드(dual code)적 경향을 지닌다.<sup>9)</sup>

이와같이 옛것에서 새로움을 만드는 Post-modernism 이론의 이중약호성은 혼성모방등 양식의 다양성을 낳고 여러 갈래로 해석됨으로써 다원성을 지향하는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킨다.

Post-modern 건축은 크게 대중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미국과 신험리주의(neo-rationaism)를 표방하는 이탈리아 중심의 유럽 건축으로 나누어진다. 로버트 벤츄리(R. Benturi), 필립잔슨(P. Jonson), 찰스무어(C. Moore)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주의는 엘리트적인 건축가 상(象)을 지양

하고, 대중을 인식하므로써 그들의 취향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형태구성의 수단으로서 과거의 양식 및 장식의 수용에 몰두하였는데 즉 과거의 양식과 형식을 임의로 취합하여 콜라쥬(collage)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유럽건축의 신태리주의자들인 알도로시와 마리오 보타<sup>10</sup>에 있어서도 도시는 기억의 집합체로서 그것들이 표현하고 있는 단편들 또한 역사적 도시와 그에 수반되는 다양한 파편들을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형태들이다.

Post-modern 건축에 있어서 가장 주된 테마는 과거로의 복귀와 건축에서의 의미 추구이다. 이것은 기능, 구조, 신기술의 결과물 정도로만 생각하던 건축의 형태가 건축에 있어서 중심된 관심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인간성의 회복을 가져왔고, 근대 건축이 임의적 추상 형태에서 탈피하여 건축물의 형태가 주는 다원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2) 미 술

Post-modernism은 근본적으로 반역사주의적인 시각에서 반(反) 전통, 반(反) 권위주의를 표방함에 따라 어떠한 모델, 어떠한 목표물도 존재시키지 않고자 하는데 이것은 미술의 영역을 무제한의 자유로 확산시켜 나갔다. 여기에 Post-modern 미술이 가지는 알레고리(allegory) 즉, 상징성은 표현 불가능한 것 자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독이 불가능한 모호함으로 Post-modern 미술의 성격을 특징짓는데, 다시 말해 allegory는 지시행위 자체를 문제삼는 해체전략이며, 과거의 형식을 취하여 오늘을 이야기하는 과거의 현존이며, 하급문화를 대변하고 불투명성으로 의미를 개방함으로써 독자를 끌어들이므로 의미의 다원화라 할 수 있다.<sup>11)</sup>

또한 미술에 있어 이미지의 재등장, 회화성의 회복은 Post-modernism 미술에 있어 다원주의적 경향을 고무시키는데 이미지의 재등장이란 재현적 이미지, 암시적 또는 상징적 이미지, 환상적 이

미지의 사용을 말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고 의미하지 않는 이미지를 뜻하기도 한다. 전자는 대상적 이미지(Image référentielle)이며 후자는 글자 그대로의 이미지(Image litterale), 다시 말하여 자기충족, 자기표현적 이미지를 말한다. 또한 회화성의 회복은 이미지들의 자유로운 확산과 상호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데 이는 Post-modernism 미술에 있어 풍성한 회화성을 낳게 하였는데<sup>12)</sup>, 미국의 뉴페인팅(New painting), 독일의 신표현주의(Neo-expressionism), 이탈리아의 트랜스아방가르디아(Transavanguardia) 등은 Post-modern 미술을 대표하는 경향이다.

### 3) 복 식

현대의 복식에 대한 관심은 '지식에서 경험으로', '이론에서 실제로', '마음에서 몸으로' 변천하는 등 '지식의 강조에서 존재의 강조'으로 가는 Post-modernism 적인 변천과 일치한다.

영국의 복식학자인 Elizabeth Wilson<sup>13)</sup>은 "style을 위한 style, 기발함, 표피적임 등 현대의 fashion분야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는 파편화된 감수성과 Post-modernism적인 파편의 미학 사이에는 특이한 조화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간파하였으며, 또한 Caroline Evans Minna Thornton<sup>14)</sup>은 Post-modernism안에서 나타나는 복식의 특성을 대략 5가지로 서술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질서가 무시되어 가치와 무가치가 쉽게 바뀌고, 역사적인 것, 민속적인 것 등 여러 의미의 가치들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이다. 둘째,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셋째, 인체를 여러각도로 파악한다. 넷째, 정치적 도구로 사용된다. 다섯째, 기발한 것들의 나열을 통해 기존의 관념들을 재음미하여 절충하는 방법을 취한다.

이와같이 Post-modernism적인 복식현상에서는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언어, 그리고 비합리성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시화 함으로서 충동적인 혼돈의

양상을 띠고 있으며, 또 사실과 풍자를 구별하기 어렵다.

이와같은 현상은 기존의 복식형태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다양한 유행을 만들어 내도록 하는데 이는 곧 Post-modernism 시대의 파편화이자 탈인간화의 경향으로 연관지을 수 있다. 따라서 Post-modern 복식은 Post-modernism적 문화안에서 나타나는 시·공간적 절충주의, 다원주의적 특성 등을 공유하는데 특히 시간적 절충주의는 복고성의 개념으로 Post-modernism 복식의 조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양식적 특성이 된다.

### 3. Post-modern 복식의 복고성

재현의 불가능성 즉 재현에 대한 회의적 고뇌는 Post-modernism의 주된 테마이며, 각 분야에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재현의 불가능성은 일반적 문화현상에서 장르의식이 붕괴되고 혼합되는 양식을 보이며, 조형예술 분야에서는 역사적, 전통적 형식에 대한 복고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같은 복고적 현상은 과거의 것들을 인용, 재사용, 은유, 혼합 등의 방법을 통해 현대에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조형예술 분야에서는 건축에서 가장 민감하게 그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복식에서도 복고풍으로 새롭고 열린형식의 표현방식으로 대두되었다.

더욱이, 가장 대중적인 미의 실천 분야로 예술을 삶 속으로 확장시키며, 사회 영역에 걸쳐 실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되는 복식분야에서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되기 위하여 과거의 것을 수용하여 새로움을 표현하고, 자율적인 미적 가치를 실천하려는 대중의 욕망을 이미 익숙한 것을 차용함<sup>15)</sup>에 의해 충족시키려 함은 중요한 표현이 된다. 이때 복고의 유형은 역사적 내용의 '재현'이 아니며 '과거성'을 이미지의 차용에 의해 전달하는 것으로 과거의 유형적인 함축(이상성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다.<sup>15)</sup>

여기에서 이미지의 차용은 주로 parody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특히 복고성의 개념을 구성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법으로, 과거의 친숙한 요소들을 인용하는 것은 충격을 증감하고 아이러니한 대조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Post-modern 복식의 조형에 있어서 나타나는 이러한 복고적 경향은 Post-modernism이 복식조형에 영향을 미쳤던 초기인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흐름의 큰 줄기를 이루어오고 있는데, 시기별로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1980년대는 Post-modernism의 특성이 복식 디자인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과도기로 과거의 것들의 재조합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자 새로운 발상의 디자인들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대중화는 되지 않은 시기로 전체적으로 다소 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고 다양한 연출들을 시도하였는데 고대로부터 심지어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시기의 유형을 모두 수용함으로써 복고 경향을 뚜렷이 나타냈던 시기였다.

이러한 복고 경향은 90년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parody를 통한 과거의 이미지의 재조합이나 Post-modernism적 유형의 파편들간의 조화를 표현하는데 있어 점차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오늘날 인간 중심적인 시대적 사고는 인간 내면의 진실한 욕구를 표현하도록 하는데 복식에 있어서 과거의 것의 도입은 이러한 개인의 표현력 창출에 자유로움과 만족을 주는 중요한 수단<sup>16)</sup>이 되고 있다.

## Ⅲ. Baroque 조형예술의 특성

### 1. Baroque 양식의 개념

Baroque 양식은, 18세기 후반 프랑스 고전주의의 입장에서 당시의 구불구불하고, 불규칙한 형태의 건축과 장식을 좋은 취미에 반대된다는 의미로 모멸적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오늘날에는 독자적인 미적 가치기준을 가진 양식으로 분류된다.<sup>16)</sup>

기실 Baroque에 대한 재평가는 예술양식가인 벨프린(H. Wöfflin)<sup>17)</sup>이나 도르스(Eugénio D'ors)에 의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Wöfflin은 16세기와 17세기 양식의 표현방식적 차이를 구분함에 있어 Baroque 양식을 '회화적인 것(das Malerische)', '심오한 것(das Tiefenhafte)', '열린 형식(die offene Form)', '통일적인 것(das Einheitliche)', '상대적 명료성(die relative Klarheit)'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때 회화적인 것이란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양식을 말하며, 심오한 것이란 공간상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것, 열린 형식이란 홀어 놓음을 의미한다. 또한 통일적인 것이란 부분이 전체에로 집중된 하나의 통일적인 것, 상대적 명료성은 형의 전체를 살살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의해 재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D'ors는 크로체(Benedetto Croce)와 같은 박학의 미학자마저도 Baroque를 추(醜)의 변형의 하나로 간주함을 지적하며 긍정적인 새로운 Baroque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Baroque에 관한 긍정적 평가는, 알리 포시옹(Henri Focillon)이 양식의 전개에 있어 네 가지 단계를 구분함에 있어 가장 자유로운 생명을 누리는 상태로 Baroque를 언급하고 있음에서 그 개념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는 양식의 전개 단계<sup>18)</sup>를 (1) 실험적 또는 아르카익상태, (2) 고전적 상태, (3) 세련의 상태, (4) Baroque 상태로 구분하고, 'Baroque 상태'는 곧 형태가 자유로운 생명력을 누리는 양식전개의 마지막 시기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형태란 이미 어떤 원칙, 규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풍요속에서 자신을 확산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일종의 과잉속에서 번식해가는 Baroque 형태들은 마침내 주위의 공간을 사방에서 침범하여 공간의 모든 가능성을 소유하려고 하며 형태에게 주어진 틀을 부숨으로서 과잉과 함께 혼돈을 야기시키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Baroque 양식은 그 본질에 있어 낭만적인, 심정적인 성향으로 부단히 생생하게 유동하는

실제적인 살아있는 정신이 그 기저를 이루고 있다.

## 2. Baroque 조형예술의 특성

Baroque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르네상스의 세계관과 달리 우주를 중심으로 하고 인간은 변화하는 대자연 속의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보는 유동·생성의 세계관을 기본으로 한다. 미술에서의 특징은 '회화적'인 것이 지배하고, 건축에서는 공간과 덩어리가 서로 얽혀 유동적인 공간배치와 곡선이 풍부한 호화로운 장식, 조각에 있어서는 조상이 완성되기보다 오히려 추위공간을 향하여 열려 있어 공간과의 상호의존 관계가 깊어진다.<sup>19)</sup>

Baroque 조형예술의 특성은 먼저 절대주의의 성립과 귀족 문화를 배경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Baroque의 조형예술은 절대주의의 왕권을 미화시키고 과시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엄과 장엄한 숭고미를 표현해야 하였으며, 사회적으로는 절대주의의 성립과 부패로 그 내부에서 상업 부르주와가 성장하고 자본주의가 성립되었으며, 문화는 절대주의 정치가 군주와 귀족, 부유한 시민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궁중 중심으로 전파되었는데 프랑스 왕정의 세습 귀족들은 그들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외형적인 미화에 치중하여 그들의 의상과 장신구 및 공예품, 가구 등 장식적인 생활 공간을 필요 이상으로 꾸미려 하였으며<sup>20)</sup> 신흥계급으로 자라나던 부르주와들은 풍부한 자금력으로 왕정에 접근하여 신흥귀족으로 승격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와 권위를 높여야 했으므로 외부적인 장식에 의존<sup>21)</sup>하여 과다 장식적인 조형미를 표현하게 되었다.

또한, Baroque 시대에는 피안에의 회구와 현세주의, 금욕과 향락주의, 신의 뜻과 자연등 상호 모순되는 요소들이 정돈되지 않은 채 어지럽게 병존하였는데 이는 억압된 감정의 격발, 격발이 풀려진 공상의 표출로 해석된다. 따라서 조형예술 또한 부조화·비대칭·왜곡 등 추(醜)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와같은 Baroque 예술의 조

형미를 최수현<sup>22)</sup>의 연구에서는 자유롭고 유동적이며 감성적인 우아, 불규칙, 불균형, 부조화의 추, 장엄하고 위대한 숭고, 그리고 비장과 끌계의 미적 범주안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와같은 Baroque 조형예술의 호화롭고 유동적이며 부조화를 이루는 구성은 결과적으로 과장된 설계, 지나친 장식, 풍요감동 조형예술의 특성으로 건축, 미술, 복식에서 공통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sup>23)</sup> 건축이 구성이라는 특성보다 시각적인 것을 추구하였듯이 복식에서도 의복의 실용성보다 장식성에 치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4)</sup>

즉 Baroque 시대에는 현실속에서 보여주는 생명의 생성과 움직임의 포착하려 하였는데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복식현상에서 많은 장식의 표현을 가져와 ribbon, lace, ruffle 등의 과도한 사용을 볼 수 있다.

또 Baroque 시대는 삶과 환희에 대한 욕망으로 향락추구가 범람하면서 여성복은 인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 형이하학적인 부위인 가슴과, 엉덩이 그리고 가는 허리를 과장하여 강조하였는데, 가슴은 깊이 파이고, 엉덩이의 돌출은 확대되어 버슬(bustle) 형태의 유행을 가져왔고 과장된 머리장식 또한 유행하였다.<sup>25)</sup> 이와같은 현상으로 남성복에서도 다채로운 색상과 곡선이 사용되어 양성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상적인 인체보다는 실제적인 인체를 매우 극적이며, 자유스럽고 비대칭적으로 강조하고자 하였다.

Baroque의 복식에서 직물의 모양은 동적 이미지를 뚜렷이 나타내며<sup>26)</sup>, 실루엣 또한 동적이며 전체적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곡선의 아름다움과 양감의 풍부함을 특징으로 하였다.

### 3. Baroque 복식의 장식성

Baroque 양식의 표현은 절대군주제의 위엄과 장려함을 표현하기 위해 색채의 화미, brocade, velvet, silk 등의 호화로운 직물, 또는 lace, loop, tassel, frill, flounce, fringe, ruffles 등의 과다

장식들을 사용하였는데, 이와같은 양감의 풍부함과 화려함의 추구는 이 시기에, 규격을 무시하고 정통의 대립과 동감의 추구로서 자유를 얻으려는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 특징적인 장식요소로 나타난 loop와 tassel은 여성복에서는 stomacher의 앞부분이나 총총장식, 또는 여밈 부분에 옷감과 같은 소재 또는 장식적 소재를 이용하여 장식되었으며, 특히 남성복에서 loop와 tassel은 이 시기 복식의 특징인 과잉 장식을 이루는 대표적인 요소로 허리선, 어깨, 소매나 바지의 단 등 모든 곳에 형형색색으로 사용되어 화려하고 동적인 느낌을 나타내 주었다.(Fig. 2, 4) loop와 tassel의 사용이 많았던 petticoat breeches는 Baroque의 특징적인 남성복식의 형태였는데, 치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단 한 벌의 petticoat breeches에 수천 yard의 loop를 사용하였고, 그 loop들은 색상, 넓이, 직조법 등이 다양하고, 모두가 정교하고 아름다웠으며, 긴 loop들은 허리선과 다리 양쪽에 집중적으로 장식되었다.<sup>27)</sup>(Fig. 1) loop들은 주로 흰색, 분홍색, 검정색 줄이 있는 베이지색, 베이지색 무늬가 있는 연보라색, 짙은 연두색, 옅은 푸른색, 오렌지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만들어졌다.<sup>28)</sup>(Fig. 3)

이와같은 loop와 tassel의 과잉사용은 루이 13세, 14세에 걸쳐 내려진 여러번의 사치금지령으로 화려한 자수나 brocade의 사용이 금지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프랑스인들은 제천으로 만드는 loop와 tassel을 착안하였는데 그 부드러움과 화려함 때문에 이것은 신속하게 유행되었고, ribbon이나 다발 형태, 등근장식, 장미장식 등으로 만들어져 다량으로 사용<sup>29)</sup>됨으로써 당시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었다. Baroque 복식의 loop와 tassel이 갖는 의미는 첫째, 시각적으로는, 전체 조화에 관계없이 다만 장식 그 자체를 위해 나열되어 고도의 미적 원리나 가치를 구한 형태는 아니나, 호화로움을 통하여 장엄하고 화려한 복식에 사용되어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기 위해 장식됨으로서 당시의 중요한 복식 조형의 요소가 되었다.

둘째로 loop와 tassel 장식은 복식에서 유행적이고 폭선이 풍부한 호화로움, 풍요로움, 감각적인 기교성을 보여주므로써 그 당시 조형예술의 미

적 가치와 흐름을 같이함으로서 시대미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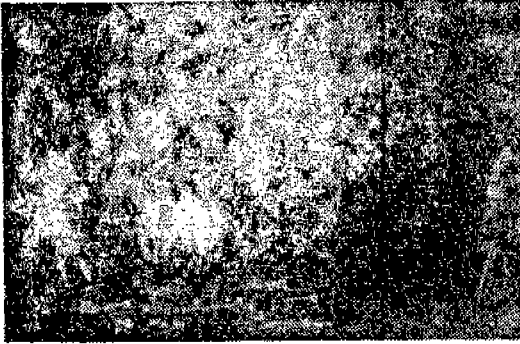


Fig. 1 Van der Meulen, 1663  
Versailles Museum



Fig. 2 M. Wright, 1663  
Collection The Duke of Sutherland



Fig. 3 J. van Noordt, 1665  
Loyns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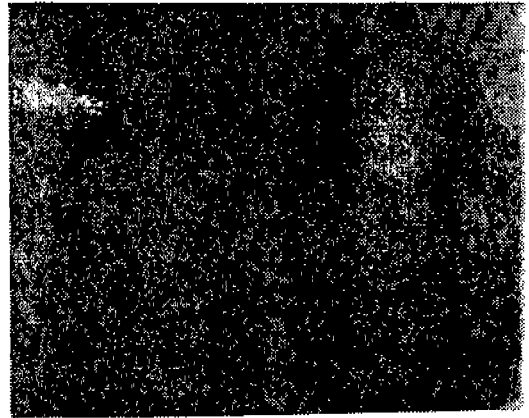


Fig. 4 Henry Vernry, 1660  
V & A Museum



#### IV. Post-modern 복식에 표현된 Baroque의 loop와 tassel

Post-modern 복식의 조형에서 장식은, 내용과 메시지의 상호소통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변용에 의한 재현적 형식을 도입하게 되는데 특히 역사적 형식이 의미의 매체로 활용되어 상징적이며 절충적인 형식을 취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형식은 패로디(Parody)나 브리콜라지(Bricollage) 등의 기법의 도입에 의해 그 표현이 가능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Parody 기법을 통해 외적·내적으로 변용 표현된 loop와 tassel의 의미를 고찰함에 의해 Post-modern 복식에 나타난 복고적 경향을 조명해 보겠다.

절대적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 화려하고 장엄한 복식에 사용되어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고, 앞서가는 유행을 상징하던 Baroque 시대의 loop와 tassel 장식은 오늘날 Post-modern 복식현상에서 외적·내적 변화를 통해 기존의 개념과 형식을 변용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아이러니한 대조가 강화된 새로움을 연출하고 있다.

복식과 같은 시각 예술에 있어서 패로디는 특정 작품이나 일반적인 것, 인습적이거나 전통적인 것과 연관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지 인용이 아니라 과거의 것의 비교, 대조를 통하여 아이러니한 비평적 거리를 형성하는 반복을 의미한다.<sup>30)</sup>

그 방법에 있어 외적 형식의 변화와 내적 의미의 변화를 패러디화의 과정<sup>31)</sup>을 통해 구분하여 살펴보고, collection을 중심으로 Post-modern 복식의 조형에 나타난 예들으로써 설명을 부연하려 한다.

##### 1. 외적 형식의 변화

외적 형식의 변화는 양식의 형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소재로는 개별적, 역사적, 시각적 장르의 양식이 모두 가능하다. 역사적인 장식요소인 loop와 tassel 장식의 parody를 통한 도입은 다양한 소재와 색채의 적극적인 도입을 특징

으로 하는 현대복식의 조형에 있어 부조화된 형태의 대비 등을 표현함으로써 아이러니한 이미지를 만들어 시대미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소재가 된다.

현대복식조형에 있어 20세기 전반 Modernism 이 실루엣에 의존하여 복식의 순수미를 추구한데 반해, 20세기 후반의 Post-modernism 안에서 복식조형은 다양한 소재와 색채의 도입에 의한 조형미의 추구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먼저 Fig. 5는 이질적인 소재들의 대비를 통하여 아이러니를 표현하고 있는데 tassel의 양감(量感)은, 수축되고 광택적인 가죽소재와 금속장식 등과 부조화를 이루어 그로테스크한 효과를 주고 있다.

parady에 의한 아이러니한 효과는 부조화되는 아이템(Item)들끼리의 이질감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은 Post-modern 복식현상에서 속옷과 겹옷, 기능복과 장식적 의복, 남성복과 여성복, 직업적 특수복의 차용(성직자복, TuTu 등), 하급 문화적 복식형태의 차용(청바지) 등을 통하여 탁월하게 재조합됨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준다.



Fig. 5 T. Mugler  
<Book Moda, 94>

Fig. 6은 현대의 기능성을 대표하는 formal wear인 suit 형태에 장식성의 tassel을 구성요소로 사용하여 의복의 기능과 형태의 이질감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tassel 장식의 특징을 과장함으로써 suit의 단조로움을 감소시키는 유희감을 유도한다.



Fig. 6 Blumarine  
〈Fashion Collections, 91〉



Fig. 7 Dieci  
〈Fashion Collections, 90〉

또 Fig. 7은 주로 선행양식과 유사한 모방을 사용하여 새로운 감각을 재창조하는 진지한 parody의 하나로, Fig. 2, Fig. 3 등에서 보여진 과거의 형식을 흡사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색상과 소재의 대비가 함께 이루어져 장난스런 효과를 주고 있다.

## 2. 내적 의미의 변화

내적 변화는 선행양식을 부적절한 주제에 걸충시킴으로써 내적 의미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Post-modernism의 문화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이분된 성별구조를 지양하고 여성들 내부의 다양성에 눈을 돌리므로써 남녀의 이질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여성의 성(性)을 강조하고자 하는 본질주의적 페미니즘(Feminism)은 그 전개에 있어 에로티시즘(Eroticism)을 유발하고 여성성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본연구에서는 Baroque 시대에 권위와 위엄 그리고 유행의 상징이었던 loop와 tassel이 성을 대표하는 에로티시즘적 경향을 표현하기 위해 변용되어 사용됨으로써 내적 의미의 변환을 가져온 것을 고찰하고자 한다.

Fig. 8에서는 skirt 부분을 구성하기 위해 변형된 형태의 tassel을 사용하였는데 장식적 조각들에 의해 erotic한 효과를 내어 femininity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위엄과 권위의 표현을 위해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던 loop와 tassel이 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각으로 도치되어 사용되었다. 또, Post-modern 복식현상에서 에로티시즘은 디자인과 소재를 통한 노출이나 소재가 인체에 밀착 또는 과장됨에 의해 표현되는데 Fig. 9에서 의상과 유사한 색상으로 만들어진 loop가 인체가 비치는 소재위에 국부적으로 사용되어 여성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Post-modernism의 본질적 feminism적인 성의 표현으로 노출을 더욱 강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Fig. 10은 인체의 윤곽을 잘 드러낸 드레스에



Fig. 8 Kimijima  
〈Fashion Collections,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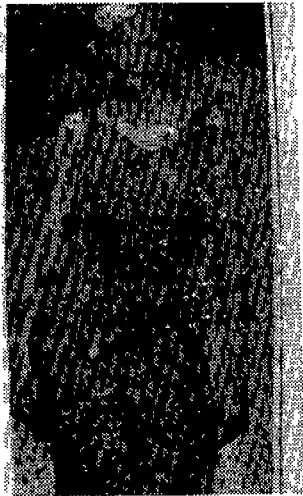


Fig. 9 Chloe  
〈Book Moda,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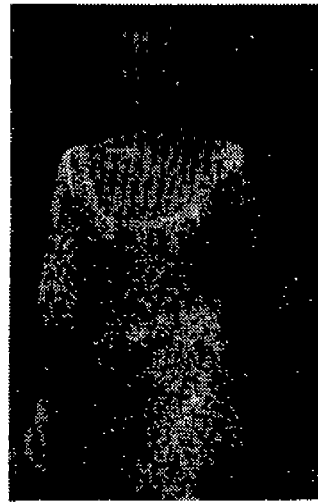


Fig. 10 Yve Saint Laurent  
〈L'Official, 94〉

## V. 결 론

Post-modernism은 문화현상 전반에 걸쳐 그 전개 양상을 달리하여 나타나며 동시에 이질적인 특성들은 다시 Post-modernism의 다원화의 특성으로 집약된다. Post-modernism의 논의에서 재현에 대한 회의는 「과거의 현존」의 양상으로 Post-modernism 안에서 가장 탁월한 개념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조형예술에서 복고주의적 특성으로 나타나며 복식에서는 복고적 경향으로 표현된다.

조형예술에 있어서의 Post-modernism은 형태의 추상적 표현으로 상징성이 결여된 Modernism과는 반대로 상징성과 비공간적인 경향을 지니며, 고전에 근거한 Post-modernism적 장식은 풍자, 변형되어 대중과의 적극적인 감정전달을 피하는

금속성 섬유로 tassel의 분위기를 표현하였는데 울동감에 의해 erotic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이 에로티시즘을 표현하기 위해 변용되어 사용된 loop와 tassel은 Baroque 시대에 주로 호화롭고 장엄한 남성복에서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였던 장식으로, 그 내적 의미가 변화되어 나타

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바 선행양식들은 외적·내적 변화에 의해 Post-modernism 안에서 탁월히 되살려지고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Post-modern 복식의 복고적 경향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데 이는 복식 분야에서도 조형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Post-modernism적 경향을 복식에서는 복고성으로 보았고, 본 연구에서는 회화적, 심원함, 열림, 통일성, 상대적 명료성 등의 표상 양식을 가지는 Baroque로 그 양식을 한정하고 과다장식, 비대칭, 부조화로 Baroque 복식의 미를 나타낸 복식의 특성을 고찰해 보았으며 특히 Baroque의 대표적인 장식 요소인 loop와 tassel을 중심으로 과거의 시대 양식을 이루었던 장식 요소가 Post-modernism적 복식조형에 어떻게 변용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첫째, 과거의 것에 대한 동경에서 출발하여 Post-modern 복식의 조형에 표현된 loop와 tassel 장식은, 시대적 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패러디 기법을 통하여 외적 내적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새로움과 창조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Post-modernism적 복식조형의 복고적 경향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복식현상에 나타난 복고성의 고찰을 통해 현 시대 사조인 Post-modernism안에서 복식은 건축, 미술 등 조형예술 분야를 비롯 제반 문화적 현상과 그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과거 전통적인 형태로의 복귀현상은, 복식에서 7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Post-modernism의 정신적 사고의 근간을 이루는데 이것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감성에 일치 내지는 조화되는 것을 찾아내어, 과거 복식에서 나타난 다양한 경향들을 현대 디자인으로서 재 구축하여 현대인들에게 유희와 다양한 기호에 대한 만족을 주며 또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지친 대중에게 이미 익숙해진 과거로 돌아감으로써 안락함과 편안한 향수에 대한 환상을 줌으로써 현실적 혼란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한 시기의 양식 전반에 나타난 특징적 요소들을 Post-modernism의 조형

적 특성안에서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관련성을 다루지 못하고 그 중 하나의 특성(복고성)만을 한정하여 분석한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조인 Post-modernism이 초기에는 하나의 '경향'에 불과했던 것이 점진적으로 '이즘(ism)'으로 발전하게 된 큰 흐름에 주목하여 현대 복식에 나타난 Post-modernism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복식이 다른 조형예술분야와 조형적 특성을 공유하는 분야임을 입증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 참고문헌

- 1) 김옥동, 포스트 모더니즘과 예술, 청하출판사, 1992, p.15.
- 2) Juliet Ash & Elizabeth Wilson, Chic Thrills, Univ. of Colifornia, 1992, p.5.
- 3) 김옥동, op. cit., 1992, p.213.
- 4) 황보경, 포스트 모더니즘 - 창조적 긴장과 간극의 미학-,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1~27.
- 5) Ihab Hassan, The Postmodern Turn : Essays in Postmodern Theory and Culture, Ohio State Univ. Press, 1987, p.29.
- 6) 권택영, 포스트 모더니즘과 문화, 문예출판사, 1993, p.20.
- 7) 서성록, 포스트모던 미술과 그 논의의 갈래들, 공간, 1990, 10월호. p.11.
- 8) 김옥동, op. cit., p.41
- 9) 권택영, op. cit., p.13.
- 10) 김문덕, 알도로시와 마리오 보타의 건축적 자세, 1986, p.29.
- 11) 권택영, op. cit., p.15.
- 12) 이일, 현대 미술에서의 환원과 확산, 열화당, 1991, p.15.
- 13) Elizabeth Wilson, Adorned in Dreams : Fashion & Modernity, London : Virago, 1985, p.11.

## ABSTRACT

- 14) Caroline Evans & Minna Thornton, *Women & Fashion*, New York : Quartet Book, 1989, pp.59~80.
- 15) 김보현 · 신명아 공역, *포스트모더니즘과 사회*, 한신문화사, 1992, p.257.
- 16) 竹内敏雄, *미학 예술학 사전*, 안길영 외(역), 1989, p.366.
- 17) 조요한, *예술철학*, 경문사, 1994, p.121.
- 18) 이일, *op. cit.*, pp.18~22.
- 19) 엄석오, *세계사상대전집 30권*, 양우당, 1986.
- 20)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89, p.162.
- 21) 丹野郁, *서양복식발달사*, 光生館, 昭和, 49年, p.104.
- 22) 최수현, *복식의 미적 범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p.41~54.
- 23) 백기주, *예술론*, 후조사, 1966, p.167.
- 24) 김영자, *17세기 건축공예에 나타난 바로크 양식과 복식에 표현된 조형성에 관한 고찰*, 대학가정학회지, 제20권 1호, 1982, p.9.
- 25) 류기주 김민자, *인체에 대한 미의식에 따른 복식형태*, -고대 이집트에서 낭만주의 시대까지-, *한국의류학회지* 16권 제4호, 1992, p. 21.
- 26) 신현숙, *Baroque 양식의 직물 문양에 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p. 76.
- 27) 정홍숙, *op. cit.*, p.172.
- 28) Blanche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 Harper & Row, 1965, pp.340~342.
- 29) 정홍숙, *op. cit.*, p.164.
- 30) Linda Hutsheon 저, 김산구 · 윤여복 역, *패로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 31) 고현진, *현대패션에 나타난 패러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3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ormative costume of Baroque style an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of loop and tassel which are the main factors of decoration in the Post-modern clothing in point of the characteristic of retro.

For this purpose, theoretical studies about the concepts of Post-modernism and aesthetic sphere of Baroque style were preceded.

Especially the parody which is concept that is the most influencing to the contemporary art, architecture, and costume.

It is the identity of the parody that is being understood smoothly the creation and the imitation which is contrasted each other. The parody is urging the purpose rather than the essence and the recreation rather than the originality of the original works.

The synthetic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frequent usage of loop and tassel which was expressed in the first half of 1990's in the modern clothing influenced the aesthetic will of aspiration about the past.

2. The characteristic of retro to the traditional form constitutes a base of spiritual thinking of Post-modernism which has been expressed in 1970's afterwards.

The peculiarity about the great change in the traditional concept of artistic creation in the Post-modern clothing is the very extension of a range of application about the retro in which it becomes the essence or the opportunity in artistic creation.